

PREVIEW

건반에 투영되는 영혼과 깊이 탁영아

탁영아는 미국 음악계의 평단으로부터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연주 (뉴욕 콘서트 리뷰), '격정과 우아함의 감동적인 조화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연주를 펼치고 있다. 그녀는 얼마 전에도 서울 아미하 그랜드 피아노 페어에서 피아니스트 김영호와 듀오 연주를 갖는 등 꾸준히 한국 무대에도 서며 그녀가 받아온 박수 갈채들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해왔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탁영아가 고국 무대로 돌아온다. 9월 10일에 재회하는 한국 관객들에게 그녀가 들려줄 곡은 베토벤의 론도와 드뷔시의 <영상 1권>,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소나타이다.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소나타를 중점적으로 조명해보고 싶었어요. 슈베르트는 공부할수록 어렵지만 무엇보다 그 깊이와 순수함에, 또한 내면을 더욱 들여다보게 만들어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서울 독주회에서도 마지막을 슈베르트의 소나타로 꾸몄어요. 이

번에 연주할 〈D784〉는 병마와 싸우며 겪는 내면의 고통과 고독함이 배어 나오면서도 때론 그것을 넘어선 듯한 아름다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브람스의 소나타는 20대 초반에 커리어를 막 시작하며 작곡한, 매우 열정이 넘치는 스케일이 큰 곡입니다. 슈만이 이 곡을 듣고 극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작곡가 자신도 가장 먼저 작곡된 곡이 아닌데도 〈Op.1〉로 세상에 내놓을 만큼 자신감을 가졌던 곡이죠.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브람스답고, 가장 슈베르트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많은 애정과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쉽진 않지만 다행히 흥미롭고 즐거워요. 요즘에는 브람스의 편지들로만 묶여진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베토벤의 론도와 드뷔시의 〈영상 1권〉도 함께 구성했는데, 다양한 색깔과 감성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해요.”

탁영아는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와 디플로마를,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외의 주요 공연장 및 페스티벌 등에서 열정적으로 연주를 펼쳐왔다. 뉴욕 카네기홀 웨일홀, 링컨 센터, 필라델피아 김멜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보스턴 조던 홀 등에 있고, 통영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실내악 축제, 뉴욕 링컨 센터 주최 ‘체임버 음악의 밤’ 시리즈, 라비니아 페스티벌, 뮤직앳멘로(Music@Menlo) 등에서 초청 연주를 펼쳤으며, 현대 음악에도 관심을 쏟아 현대 음악 시리즈인 ‘Sequenza 21’과 ‘Piano Century’에서도 연주했다. 독주, 실내악, 협연을 오가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다루는 등 탁영아의 연주 활동은 매우 폭넓었다. 또한 부산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무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지방 연주에도 관심이 많고, 또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서울 연주에 앞서 9월 5일에는 부산 소민아트홀 기획 초청 연주의 일환으로 독주회가 잡혀있어요. 솔로, 협연, 실내악이 각각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무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원래 현대곡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시대의 음악을 더 많이 연주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는데, 한국에서 현대 작품을 연주한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현대곡도 무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탁영아는 현재 미국 사우스이스턴대의 레지던스 아티스트이자 필라델피아의 이스턴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이스턴대 피아노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페스티벌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사우스이스턴대는 제가 박사 과정 중 교수로 공채 임용된 첫 직장으로, 의미 있는 곳이에요. 현재 연주와 레슨, 공개 강의, 실내악 코칭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이스턴대 피아노 페스티벌은 레슨, 교수 및 학생 연주, 마스터클래스, 콩쿠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새로운 학생들과 음악 동료들을 만나고 음악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도 구상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모자라서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 많아요. 티칭은 어렵지만 참 매력적인 일이고, 음악을 통해 학생들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삶에 대해 배우고 나눌 수 있어서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 대해 일단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환경, 생각하는 과정,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할 때 더욱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과 잠재력을 끄집어내 어떻게 원하는 곳에 도달할지 함께 연구하고, 결국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탁영아는 이번 독주회 이후 플로리다와 필라델피아에서 독주와 피아노 듀오 연주를 하며, 페스티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저명한 작곡가 주디스 자이몬트(Judith Zaimont)의 70세를 기념하는 음악회의 일환으로, 그의 새로운 곡들을 연주하는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무대 위 연주는 연주자의 영혼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가가 될 때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 음악 안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런 신념이 있어야 진심 어린 음악이 우러나오고 모두의 가슴에 남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음악의 본질을 연구하고 어떻게 음악의 핵심을 전달할지 고민하는 것도 연주자들의 몫이겠죠. 묵묵히 노력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그런 모습들이 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참 보람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글 | 류현정**

피아니스트 탁영아 초청 독주회 9월 10일 20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program
베토벤 〈론도, Op.51-1〉,
드뷔시 〈영상 1권〉,
슈베르트 〈소나타, D784〉,
브람스 〈소나타 1번, Op.1〉